경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화산저수지 환경정화활동

배정환 기자 | 승인 2026.06.18 19:14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는 지난 17일 화산(마근)저수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2026년 상반기 환경정화행사'를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는 지난 17일 화산저수지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2026년 상반기 환경정화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농업용수 공급의 중심지이자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화산저수지의 수질을 보호하고, 쾌적한 수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환경정화 활동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임직원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저수지 주변 산책로를 비롯해 접근이 어려운 수면부와 제방 일대에 방치된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며 환경정화에 힘을 보탰다.

특히 화산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 기능과 함께 주민들이 찾는 생활 속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만큼, 지속적인 수질 관리와 주변 환경 정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관계자는 “저수지 내 낚시금지 계도활동과 쓰레기 줍기 활동 등을 통해 청결한 저수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